

## 경복궁 신무문 개방행사

- 인 사 말 -

오늘 우리 어린이 손님들이 많이 왔으니 어린이 손님들 상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덥지만 오늘은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여러 나라를 다닐 텐데 세계 어느 나라를 가도 서울보다 더 볼 것이 많고 아름다운 도시가 별로 없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갑갑한 느낌이 드는 곳에 살다가 외국에 가서 지평선이 보이는 넓은 땅에 엄청난 크기로 우뚝 솟은 건물들을 보면 ‘야!’ 하고 기가 죽는데 자꾸 보면 재미가 없습니다.

**서울은 보배 같은 산과 역사가 있는 도시**

여러 도시를 보면 서울 생각이 납니다. 서울은 크지도 않고 아기자기한 산들이 기기묘묘하게, 아름답게 도시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산이 하도 가까워 산을 등지고 사는 듯하고 산에 기대고 싶은 마음도 들고, 문을 열면 산이 앞마당으로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산이 정말 보배입니다.

서울은 특히 역사가 있는 도시입니다. 경복궁을 보면 외국문화재와 느낌이

다릅니다. 외국의 덩치 큰 문화재, 건물이나 조각을 보면 크다, 어떻게 만들었을까, 돌은 어떻게 옮겼을까, 저 높은 건물은 어떻게 지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 가지 생각이 드는데 저걸 지으려고 얼마나 큰 권력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동원했을까, 또 하나는 어떻게 지었을까 기술이 궁금합니다.

(집옥재를 가리키며) 이 건물을 보면 탁 드는 느낌이 뭐냐, 얼마나 많이 피땀을 흘렸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까? 외국건물과 비교하면 그런 생각이 안 듭니다. 그냥 반갑다, 아름답다는 느낌만 듭니다.

외국유물을 보면 머리로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문화재는 가슴으로 느껴지면서 그냥 아름답습니다. 그 외의 다른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 외국엔 우리나라 궁궐처럼 편안한 느낌 없어

선조들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고 정교하게 지을 수 있었을까, 감탄과 존경이 생겨납니다. 또 우리도 이런 아름다운 문화를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자랑스러움이 생깁니다.

어느 나라 궁궐을 보더라도 우리처럼 나무가 적당하게 배치된 궁궐을 볼 수가 없습니다. 나무가 아무렇게나 자라난 거대한 숲이나 깔끔하게 다듬은 인공정원인데, 우리 궁궐은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가 인공으로 한 것 같기도 하고 자연 그대로인 것 같기도 하면서 보기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요즘 문화재 해설사, 문화재안내원이라고 계신데 그 중에서 가장 직책이 높고 월급을 많이 받는 분이 여러분에게 집옥재에 대해 설명해줬습니다. 우리나라 어디든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청이 여기가 내 땅이다 하면서 집

도 못 짓고 땅도 못 파게 하는, 엄청나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이 설명해주니 기분 좋죠? 엄청나게 높은 사람이 설명해줬다고 일기장에 쓰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비싼 사람이 문화재를 얘기 한 겁니다.

오늘 제가 기분이 좋은 게 여러분들과 한 발 더 가까워진 느낌에서입니다. 사람은 소통하고 살아야 합니다. 지배하는 사람도 있고, 지배받는 사람도 있는데 내 희망은 이 차이가 적길 바라는 것입니다.

### 권력자와 국민, 가장 큰 단절은 소통 안되는 것

지배하는 사람과 지배받는 사람 사이에 가장 큰 단절은 소통이 안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이해관계가 다르고 따로 사는 것이죠. 이런 게 오래가면 권력을 가진 사람은 잘 살겠지만 일반국민들은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권력은 높아지고 소통은 안되기 때문입니다.

권력을 가진 자와 국민이 소통돼야 합니다. 과거에는 제도적으로 이 소통을 막아놓았고 지금은 법적으로는 소통이 잘 되게 했으나 그래도 거리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청와대의 권력이 높아 가까이 오기 어려웠습니다. 우리사회가 불안정했고 안보도 불안했고, 여기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여기저기 막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지나다닐 때 검문을 했었습니다.

북악산만큼 아름다운 산도 없는데, 아름다운 것은 쳐다보면 가고 싶고, 가면 오르고 싶고 하는데 지금까지는 못 갔습니다. 옛날에는 못 갔고 지금도 숙정문 지나서 촛대바위까지만 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년 4월이 되면 자하문까지 다 뚫립니다.

요즘 청와대 앞길이 청춘남녀의 데이트 코스로 인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삼청동 음식점들도 장사가 잘됩니다. 이제 이 문까지 열어놨으니 최상의 코스가 됐습니다.

### ‘내가 주인’ 이라고 생각하며 걷는 ‘제왕로’

이 길 이름을 붙이자면 ‘제왕로’ 라고 하겠습니다. (경복궁역에서 내려서) 내가 주인이다, 하는 생각으로 청와대까지 걸어갈 수 있는 길이니까요. 길이 열렸습니다.

1년에 한 번 가는 길이라도 막혀 있으면 그냥 답답한 듯 하고 평생 안가는 길이라도 열려있다고 생각하면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여기 와서 청와대 한 번 보고 대통령 일 잘하나 한 번 쳐다보고 하십시오. 이렇게 권력을 행사 하는 사람과 국민들 사이에 길이 열린 게 참 의미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습니다.

내가 옛날에 종로 국회의원을 했는데 대통령 행사가 있으면 길이 막혀 몇분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5분을 기다려도 1시간 같았던 게 이유 없이 제약을 받으니까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우리사회가 안정됐습니다. 기쁘게 생각하시고,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세요. 앞으로 여러분 잘 모시겠습니다.

문화재관리국 여러분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참석자 여러분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어린이 여러분, 오늘 가서 대통령과 30분간 놀았다고 일기장에 쓰세요.